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투스 쾨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44.918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어리 석은 부자

[제1 독서] 코헬렛 1,2;2,21-23
 [화답송] 시편 90(89),3-4.5-6.12-13.14와 17 (◎ 1)



-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아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아옵니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제2 독서] 콜로 3,1-5.9-11.12-14

[복음 환호송] 마태 5, 3

-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알렐루야

[복음] 루카 12, 13-21

[성가안내]

- 입당성가 [27] 이 세상 덧없이
- 봉헌성가 [342] 제물 드리니
- 성체성가 [177] 만나를 먹을 이스라엘 백성
- 파견성가 [63] 온 세상에 전파하리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니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영미사	봉헌
박 난성 요셉 프란치스코 영혼 원 근자 체칠리아 유 혁일	양 미국 마리아 방 상욱 베드로 유 희순 그레이스
생미사	봉헌
이 지원 세라피나, 이 경호 올리안나 장 해라 마리 스텔라 (생일 축하) 이 영애 레지나 최 희주 클로틸다 (생일 축하) 이 지연 안나 레지나 최 미루 로사 김 가롤로 신부, 박 티모테아 수녀 2022년 모든 청년 전례 부원 이 홍규 요한, 이 조진 요한, 이 로잔 캐더린 이 브라이언, 박 수진 Charles Whelan Ayumi Lina Kim Yamagata	이 정현 헬레나 이 지훈 아네스 이 지훈 아네스 이 지훈 아네스 청년 전례부 청년 전례부 청년 전례부 청년 전례부 이 미숙 안나 민 덕미 안젤라 김 승범 프란치스코 김 영빈 루시아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 1	복사 2
7월31일	이지훈 아네스	박기목 알버트	민덕미 안젤라	민덕미 안젤라	안선정 마리아나	김유화 데레사	조소연 마르티나
8월7일	김유화 데레사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정유진 콘솔시아	정유진 콘솔리아	김영숙 카타리나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후보

2.

● 김진열 가롤로 신부님과 함께하는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순례 - 선착순 모집합니다.

- 일 시 : 2022. 9. 13 (화) ~ 9. 16 (금)
- 순례비용 : \$1,450
- 순례신청 : 여권 사본과 예약금 \$1,000
- 문 의 : 박 알버트 (646-201-0175)

● 한가위(추석) 합동 위령미사 신청 받습니다.

- 일 시: 9월 11일(일) 오전 11시
- 장 소: 뉴튼 성 베네딕도 수도원

● 제6차 미 동북부 청년 '선택 주말'

- 일 시 : 9월 3일(금) ~ 5일(일)
- 문 의 : choicenj@gmail.com
- 신청기간 : 7월 15일 ~ 7월 31일 (선착순 30명)
- 장 소 : 뉴튼 수도원

● 레지오 마리아 교육

- 일 시 : 9월 23일(금) 오후 4시 ~ 9월 25일 (일) 오후 5시
- 신청마감 : 8월 28일 (일)
- 참가비 : \$300 (선착순 30명)
- 장 소 : 뉴튼 베네딕도 수도원
- 신 청 : 신청서 작성 후 본당 사제의 서명, 각 본당 꾸리아 단장님께

[성사 안내]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아랫 성당
고해성사	주일 오전 8:30 ~ 8:50 2층 사무실

[단체모임 안내]

울뜨레아	첫째 주일 11:00 am	Conf. Rm(2F)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요셉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D
연령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꾸리아	셋째 주일 11:00 am	Conf. Rm(1F)
성소후원회(양업회)	셋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령기도회	매주 화 6:00pm~7:00pm	Conf. Rm(2F)
예수성가정회(FYMNY)	넷째 주일 11:00am ~	교육관 1B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am ~	Conf. Rm(2F)
'신명' 풍물패	둘째,넷째 주일 2:00pm~	교육관 3A
예비자 교리반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3A
하늘처럼 성가대	매 주일 8:30am~1:30pm	교육관 3B
청년회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2A
청년 전례부	둘째 토요일 3pm~5pm	교육관 2E
청년 성가대	둘째 토요일 3pm~5pm	교육관 3B
구세주의 모후 Pr.	매주일 8:00 am ~	교육관 2E
우리 즐거움의 원천 Pr.	매주일 10:30 am ~	Korean Conf.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 | | |
|----------------|------------|
| 김순한 (루시아) | 김옥지 (아가다) |
| 이정주 (소화데레사) | 김동희 (헬레나) |
| 정창동 (폴리나) | 지군자 (스테파니) |
| 진정은 (마리아) | 이진자 (세실리아) |
| 고종호 (마태오) | 이병국 (요한) |
| 이경봉 (요셉 그레고리오) | 박명순 (모니카) |
| 이경희 (미카엘라) | |

[2022년 7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노인들'

민족의 뿌리와 기억의 상징인 노인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젊은이들을 도와 그들이 희망과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도록 기도합니다.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ISC
NEW YORK
International Student Consulting
졸업/OPT 후 진로고민 및
진학/취업/자기소개서/면접준비 무료상담
iscnewyorkmetro@gmail.com
1-917-386-7405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원주
NEW WONJO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INE & LIQUOR
WEST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1AM-11PM /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212-594-7773
646-808-7322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212-203-0072
Kakaotalk ID: nycacu

광고주를 찾습니다


광고주를 찾습니다


연중 제18주일(다해)
(코헬렛 1,2; 2,21-23 콜로새 3,1-5.9-11 루카 12,13-21)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은 세상에서 누구나 '열심히 산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열심히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는 표현이겠습니까? 똑같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과 자기의 삶에 관해 좋은 평가를 바라는 하는 사람의 기준은 다를 것입니다. 아무래도 평가하는 사람보다는 평가를 받으려는 사람의 욕심이 클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는 세상의 삶만 좋아지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을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사람에 따라서는 신앙을 오로지 세상의 삶과 그 편리함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안타깝다고 표현하면, 그 사람은 삶의 변화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오늘 복음에 등장한 젊은이는 자기 형에게서 재산을 더 받으려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형님을 설득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원하는 대로 하기보다는 비유로 그가 세상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 요청하십니다.

사람의 삶에 돈이나 재산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없어서 곤경을 겪은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있어서 관리하기가 힘들다고도 말하는 것이 돈이기는 하지만, 없으면 삶이 곤란한 것도 바로 돈이나 재산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나 재산을 더 가지려는 것은 누구나 가질 법한 당연한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이 당연한 것을 얻지 못할 때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둔 부자'의 비유에서 무엇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재산이 하느님 나라의 생명과는 연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에게 중재를 요청했던 젊은이의 귀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귀에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얻고 싶은 것은 말씀이 아니라, 형님에게서 더 얻을 재산과 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보다 먼저 들은 코헬렛의 말씀은 세상의 삶을 부정적으로 대하기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그 말씀에서 배울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기가 쉬운 내용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얻었거나 말하고 싶은 고대의 지혜는 '세상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었을까요? 그러한 지혜를 통하여 유대민족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뛰어난 민족이 된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는 질문하고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코헬렛의 말씀처럼, 세상의 삶은 정말로 허무하고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에게 물으면 그렇게 응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겠지만, 열심히 세상을 살았다고 할 사람이 남기는 결과들을 보면, 정말로 의미가 있고 그 사람을 칭송해 줄 결과를 우리는 얼마나 보겠습니까? 어찌 됐든지 모든 것이 의미 없다고 말하는 표현에 담긴 코헬렛 말씀의 참뜻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삶이 의미가 없다면, 지금 당장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고 해도 아쉬울 것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현실의 삶이 지금 끝나도 괜찮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백세시대를 얘기하면서, 그 나이보다 더 빨리 죽는다면 아쉬운 것이 많다고 할 세상이라면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삶의 결과를 예상할 때 우리가 듣는 얘기는 비극적이어도, 우리가 가질 자세로 그렇게 생각하는 일은 옳지 않을 자세일 것입니다.

지속되는 팬데믹 속에서 또 이 무더운 여름, 우리가 갖는 자세는 삶에서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 서울 대교구 이 철희 신부 -